

# 광주·전남 지역화폐 ‘폭풍 성장’

### 시, 입소문 효과로 도입 첫해 목표액 초과 달성 도, 1년 새 200% 증가...전 시·군에 사업 확대

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광주·전남 지자체들이 도입된 지역 화폐가 폭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.

특히 전남지역은 올 한 해 발행된 지역 화폐 규모가 지난해보다 200% 이상 증가 한 가운데 광주시는 운영 첫해 발행 목표 액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.

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‘광 주상생카드’ 발행액은 지난달 600억원을 돌파했다.

‘광주상생카드’ 발행실적은 지난 9월 23일 출시 6개월 만에 300억원을 돌파한 이후 두 달 동안 300억원이 판매됐다.

최근 월별 발행실적을 보면 7월 76억원 ·8월 93억원·9월 122억원·10월 142억 원·11월 180억원 등으로, 올해 발행 목표 액인 827억원은 이달 중으로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이 같은 ‘광주상생카드’의 인기는 시 가 지역화폐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10% 특별 할인 효과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순수 카드형 지역화폐로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또 블로그와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 스(SNS)에서 젊은 층과 주부들에게 입 소문을 타면서 발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.

시는 ‘광주상생카드’ 활성화를 위해 실 시하고 있는 10% 특별 할인은 12월에도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. 선불카

드와 체크카드 각각 1인당 구매·사용 한 도 50만원 내에서 10% 할인혜택을 제공, 최대 할인한도 100만원의 10%인 10만원 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.

이와 함께 전남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 는 올해 도내 전 지자체에서 발행되면서 통화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.

시·군별로 보면 해남과 완도가 올해 제

도 도입과 동시에 가장 큰 규모인 150억 원을 각각 발행했다. 이어 목포·영광 (100억원), 강진(92억원), 함평(73억 원) 등에서 지역화폐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지난달 말 장흥군은 ‘정남진 장흥 사랑상품권’이라는 이름으로 50억원 규 모의 지역화폐를 판매하면서 도내 전역에 서 지역화폐가 유통되고 있다.

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2,500억원으로 확대하고, 상 품권으로 유통되는 지역화폐 할인율도 끌 어올릴 방침이다.

도는 또 지역화폐 과열로 인한 부작용 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·군 현장점검을 분 기별로 실시하고 판매·환전금액 제한키 로 했다. 이밖에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지 역마다 배치하는 한편, 가맹점 확대 방안 도 마련할 방침이다.

전남도 관계자는 “지역화폐 발행을 조 폐공사에 위탁해 위·변조를 차단하고, 할인판매 등 부정유통 감시 체계도 강화 하고 있다”며 “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 입 취지에 맞도록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”고 말했다.

/김영민·황애란 기자



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

4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‘제9회 광주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 추진대회’에서 광주녹 색어머니연합회원등참석자들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. /김태규 기자

## ‘친일잔재’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

전남교육청, 새 교과 제작 등 청산 박차

전남지역 학교 현장에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친일잔재가 학생들의 역사교육 자료 로 쓰인다.

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3·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을 맞아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에 나 서 지난 10월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석물 16개·교과 14개에 대한 청산작업을 진행 중이다.

그 결과 최근 석물 16개가 놓여 있는 현 장에 친일잔재임을 확인하는 안내문 설치 를 완료했다. 지난 3일엔 장석웅 도교육 감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여중 교훈비 앞 에 설치한 안내문 제막식을 갖고 그 결과 를 공개했다.

장 교육감은 “올해 3·1운동 및 임시정 부 100 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작업을 전국 어느 곳 못지 않게 선도적으로 추진 하고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했 다”며 “안내문을 설치한 친일잔재가 교육 적으로 잘 활용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전수조사를 벌여 도내 169개 학교에서 일제 양식의

각종 석물과 교표·친일음악가 작곡 교과 ·일제식 용어가 포함된 생활규정 등 175 건의 친일잔재를 확인했다.

일제 양식의 총훈탑·석등과 같은 석물 도 34건이나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 다. 이 중 친일인사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 비와 총훈탑·교훈비도 다수 포함돼 있어 우선 16개 석물의 안내문 설치 예산을 지 원해 최근 설치를 완료했다.

또 도교육청 일제잔재청산 TF팀에서 교과 전체를 분석해 친일음악가 제작·가 사 오류·표절·선술 오류 의심 학교 96교 를 안내하고, 학교 의견을 반영해 친일음 악가 제작 교과를 우선으로 14교에 교과 제작 예산을 지원했다.

새 교과 제작엔 학부모·학생 등 교육 공동체가 참여하는 등 새로운 학교 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내년 초 개최되는 졸업식부터 사 용토록 할 예정이다.

한편, 도교육청은 오는 16일 순천만생태 문화교육원에서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최 종보고회를 열 계획이다. /조기철 기자

## 시교육청, 16일부터 대입정시대비 맞춤형 상담

광주시교육청은 16~20일까지 5일 동 안 ‘2020학년도 대입 정시전형 대비 고3 맞춤형 1대1 대면 상담’을 진행한다고 4 일 밝혔다.

이번 상담은 대입 정시 전형에 대비해 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지는 전문 상담 활동 이다. 시교육청은 다년간 진학 지도 경험 을 지닌 현직 진학 전문 교사를 상담위원 으로 위촉해 질 높은 개인 맞춤형 진학 상 담을 제공한다.

참여 학생은 자신의 수능성적표를 지참 해 참석하면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능성적조합과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와 학과에 대한 정보

를 제공받게 된다. 총 54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1일 6시 간 2개 조로 나누어 진행된다. 상담은 1 인 1회로 한정하며 상담시간은 1회당 30 분으로 25분 상담에 5분 휴식 시간이 주 어진다. 상담 장소는 시교육청 별관 1층 원서접수처다.

신청은 광주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 우측 하단 ‘정시 집중상담’을 눌러 원하 는 날짜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. 신청은 누리망(인터넷)으로만 가능하 다. 신청 시작 시간은 12월 5일 오전 9시 이며 선착순 마감한다. /조기철 기자

## 유튜브 5·18 왜곡 영상 200건...올해 급증

###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

5·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유튜브 영 상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5·18기념재단은 4일 민주언론시민연 합 등과 공동으로 ‘2019년 5·18민주화운 동 관련 왜곡 언론·방송 및 유튜브 모니 터링 결과 보고회’를 열었다.

조사 결과 유튜브에 게시된 5·18 왜곡 영상은 모두 200건으로 올해에만 49%인 98건이 업로드된 것으로 조사됐다.

특히 ‘5·18 망언’ 논란으로 거센 비판

이 나온 이른바 ‘지만원 공회회’가 열린 올해 2월 이후 왜곡 영상이 급격히 늘어 난 것으로 분석됐다. 2015년엔 31건으로 전체의 15%를 차지했고, 2017년과 지난 해 각각 20건(10%), 19건(9.5%) 등으 로 그 뒤를 이었다.

이에 대해 5·18기념재단 한은영 연구 원은 “진상조사위 구성이나 헬기 사격, 국회 망언 등 5·18과 관련한 쟁점이나 논 란이 생길 때마다 왜곡 영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”고 말했다.

또 “논란이 생기면 관련 주장을 하는

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한군 개입설, 폭동 설 등을 다시 가져와 끊임없이 반복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”고 설명했다. 왜곡 영상이 늘어난 만큼 해당 영상을 조화한 사람도 크게 늘었다.

올해 10만명 이상이 조회한 왜곡 영상 은 34건, 5만명~10만명 이하 15건, 1만~5만 이하 62건 등으로 나타났다.

전수조사한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 합 김옥렬 대표는 “지만원 등이 왜곡된 내용을 말하면 다른 유튜브가 그것을 기 정사실로 해 인용하는 등 왜곡 정보가 계

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”며 “이런 왜 곡 생산 구조가 점점 고착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강제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.

방통위는 올해 117건의 5·18왜곡 유튜 브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 만, 현재까지 지정 조치된 영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.

민언련 조선희 활동가는 “유튜브는 구 글이 운영하는 외국 회사여서 방통위가 삭제·차단하라는 결정을 내려고 소용이 없다”며 “강제 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필 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/김종찬 기자

**“노래는 노래방에서”**

○···식당에서노래부르는 것을 제지한다며 업주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서행.

○···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(68)는 전날 저녁 6시 30분께 서 구 농성동 한 국밥집서 노래부르는 것 을 방해한다며 손님들을 내쫓고 업주

B씨(65·여)를 밀쳐 넘어뜨린 것. ○···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“노래부 르는 것을 제지한다며 업주를 때리고 난동까지 피우면 어떻게 하느냐”며 “식당은 노래부르는 장소가 아니다.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을 가면 되는 것”이라고 일침. /김종찬 기자

## 공기청정기 전문 대표기업 DK

벽걸이형 공기청정기

미세먼지는 물론, 탈취까지 환경에 맞춰 진화한다

mini air

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!

스탠드형 공기청정기

플라즈마 더블케어로 한번 더!

**DK** 디케이 주식회사

소형, 중형, 대형 공기청정기 제조 및 A/S | 문의 1544-1154 | www.e-dk.co.kr